
		보 도 자 료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1년 6월 22일(화) 총 2매	 환경특별시 인천		
담당 부서 대기보전과	담당자 • 대기정책팀장 정우영 ☎440-3501 • 담당자 송유진 ☎440-3504				
사진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일 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사업장 협약으로 대기오염물질 126여 톤 줄여

- 제2차 계절관리기간(' 20.12.~' 21.3.) 미세먼지 저감 43개 사업장 참여 -
- 전년 동기 대비 총 26% 배출량 감축 성과... 우수사업장 표창 등 혜택 제공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제2차 계절관리기간(' 20년 12월~' 21년 3월) 동안 43개 기업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 참여 결과 전년 동기 대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26%(126여 톤)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배출량을 가장 많이 감축한 사업장과 유공자에게 22일 표창장을 수여했다.

참여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총량관리사업장으로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후시설 교체, 보수, 공정 개선 등으로 오염물질 제거효율을 향상시켰으며 이를 위해 총 417억 원을 투자했다.

이들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분석 결과 전년 동기 대비 먼지 2톤·황산화물 4톤·질소산화물 120톤을 감축해, 총 126톤을 줄이는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제2차 계절관리기간 배출량 353.6톤(26% 감축) ← 전년 동기 480.2톤

이날 시는 배출량을 많이 감축한 2개 업체에 표창장을 수여했다. 포스코에너지(주)는 발전기 내 부속설비 개선을 통해 배출량을 73톤 감축했고, 인천종합에너지(주)는 열에너지 회수, 약품사용량 변경 등 공정 개선으로 배출량을 16톤 감축해 대상 사업장 중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또한 대기오염물질 자발적 감축 활동에 기여한 공로가 큰 사업장 담당자 2명(김용하 포스코에너지(주) 대리, 임진구 인천종합에너지(주) 대리)에게는 개인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번 표창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하기 위한 과감한 투자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사업장에 혜택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수여하게 됐으며,

협약 체결 사업장 43개소 중 총량관리 오염물질 배출량 5% 이상 감축한 24개소 사업장에 대해서는 오염물질 자가 측정 주기를 조정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유훈수 시 환경국장은 “청정연료 전환과 환경시설개선 등을 통해 맑고 쾌적한 인천을 만드는데 지속적인 협조와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 관련 사진은 행사(12:00) 이후 인천시 홈페이지-보도자료에 게시 예정입니다.